

西浦金萬重과 그의 文學

玄 商 鍾

차 례

一、序 言

二、그 의 生 涯

1. 時代的 背景
2. 家庭環境과 成長
3. 政治生活
4. 內面生活
5. 爲 人

三、國 文 學 觀

四、그 의 作 品

1. 九 雲 夢
2. 謝氏南征記

五、結 語

一. 序 言

西浦 金萬重이라 하면 누구나 『九雲夢』과 『謝氏南征記』의 作者라고 곧 聯想할 것이다.

그는 가장 黨爭의 葛藤이 極한 肅宗朝에 活躍한 學者로서 어떻

게 우리 國文學史上에 大傑作을 著作하게 되었을까? 또한 李朝社會를 一貫하여 文學을 一個의 余技로 보았고 더군다나 小說이라고 하면 無條件 排斥하던 時代에, 西浦는 果然 어떠한 文學觀을 가지고 이와같이 훌륭한 作品을 쓰게 되었을까? 또 그의 文學作品은 우리 國文學史上의 어떠한 位置에 있으며, 西浦의 位置는 어떠한가? 등등을 우리는 더 생각 하여야 될 것이다.

여기에 對한 解答은 지금까지 여러 學者들이 論하여 온 바이다. 여기에 저는 여러 學者들이 論한바 諸說을 綜合하는 程度로서 後日 이에 對한 研究의 準備에 對하고자 하는바이다.

李朝中期以後의 文學史를 도라다 볼때 壬·丙兩亂을 中心으로한 貴族文學(時調文學)의 隆盛時代와, 英·正朝를 中心으로한 平民文學(小說文學)의 隆盛時代, 이 中間에 位置하여 있는 文學이 肅宗朝의 文學이다. 그러면 이 肅宗朝의 文學은 어떤 文學인가? 前時代의 貴族文學과, 다음 時代의 平民文學의 中間的, 橋梁的 文學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代表的인 作品으로서는 西浦의 "九雲夢"과 "謝氏南征記"를 들어야 될 것이다.

二. 그의生涯

1. 時代的背景

1. 黨爭

李朝政治史를 도라다볼때 가장 注目되는 것이 곧 黨爭일 것이다. 黨爭의 起源에 對해서는 諸史家들이 論하여 온 바와 같이 燕山君以來 諸士禍로 비롯해서 躍起되었으며 西浦의 時代에 와서는 한층 더 複雜하여 졌다.

宜祖八年에 이르러 諸儒臣들 間에 자리다툼, 權力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서로 黨派를 形成하게 되었으니 卽 戚臣 沈義謙(西人)과 士類 金孝元(東人)을 中心으로 하여 西·東兩黨의 成立되었으며 宜祖二十四年에 東은 다시 南北으로 分裂되었다. 卽후 계속하여 執政하여 오던 北人이 仁祖反正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고 代身 西人이 執政하였으며 南人과 對立하게 되었다. 顯宗朝에 이르러 慈의大妃(仁祖妃) 및 仁宣大妃(孝宗妃)의 服喪問題를 가지고 南人과 西人이 다투게 되었다.

慈의大妃의 服喪問題는 孝宗己亥年 五月에 昇遐하자 곧 發端된 것으로 慈의大妃의 服喪은 當時의 領敎領府事 李景奭 領議政 鄭太和 및 吏判 宋時烈 右參贊 宋俊吉等 西人이 기年(一週年)으로 決定한 데 對하여 南人인 掌令 許穆이 三年服을 主張하고 기年服이 非禮임을 攻擊함으로써 惹起된 波動이었다. 南人側에서는 尹善道等이 活躍하였으나 西人側의 二宋이 猛活躍으로 말미암아 勝利는 드디어 西인에게 도라 왔다.

다음 顯宗十五年 仁宣大妃의 服喪問題에 있어서는 西人에서는 服制에 對한 明確한 答辯과 根據의 啓示를 못함으로 여기에 西人은 政局에서 물러서게 되고 南人인 許積이 領議政의 地位에 서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肅宗의 卽位를 보게 되었는때 이 肅宗時代에 이르러서 黨爭은 더한층 複雜하여 졌다. 領議政 許積은 西人, 卽中에서도 宗時烈을 猛烈히 攻擊하기 始作하였고 宗時烈은 할수없이 德原府에 鼠配되고야 말았다. 여기에 西人의 沒落과 南人의 隆盛을 보게 되었으나 肅宗六年, 所謂 庚申換局에 事態는 逆轉하게 되었다. 卽 許積의子 堅과 三福(麟平大君의 三子 卽 福昌, 福善, 福平)의

謀反의 陰謀가 들어 나자 積以下 一大獄事가 버러져 西人이 다시 權勢를 가지게 되었다. 이 疑獄事件后에 다시 許士 許瑛의 獄事가 일어남을 契期로 하여 그 處罰問題에 있어서 西人에서는 意見이 兩分되어 肅宗九年에 過擊派는 宋時烈一派 即 老壯派로, 滯和派는 趙持謙等派 即 少壯派로 兩分되었다. 여기에서 所謂 李朝四色이 形成되었다.

肅宗은 민妃의 몸애 일직히 子息이 없었다가 王의 寵姬 張昭儀 몸애 王子(후에景宗)을 낳으니 王十五年 正月에 世子를 封하고 張氏를 肅嬪으로 삼았다. 이에 對하여 老少論 全部가 反對하였고 宋時烈은 上疏하여 世子冊封이 아직 빠르다고 하여 閔妃를 擁護하였다. 王은 이에 大怒하여 宋時烈을 濟州로 귀양보냈다가 賜死하였고, 이때 西浦로 絶島로 귀양보냈다. 그리하여 민妃는 廢位를 當하고 西人이 執政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黨爭의 熾熱로 政權이 자주 交替됨에 따라 政客들은 現實과 그세들의 理想의 不合理로 말미암아 悲觀的 焦燥感에서 그세들이 生活에 對한 一種의 締念을 얻었을 것이며 華麗한 貴族社會의 享樂의 裏面에 恒常 存在하였던 慘劇은 드디어 反映해서 表面化되고야 말았던 것이다.

2. 佛 教

李朝가 建國되면서 斥佛승儒라는 旗幟下에 羅•麗時代를 通하여 國民의 두터운 信仰을 받았던 佛教가 排斥當하여 寺院은 山谷으로 물러가고 僧侶의 地位는 땅에 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佛教는 近千 余年間 國民의 宗教로서 信仰되어 오던 것이 一朝一夕에 사라질 리 없었다.

朱子學이 아무리 現實的 合理主義的 道德哲學이라 할지라도 特殊

한 知識人들의 意識은 滿足시킬뿐이고 一般平民에게는 오히려 排斥 받는 佛敎를 자기들의 唯一한 宗敎로 信奉되어 왔으나 王·丙兩亂以後 百姓들의 生活이 말할수 없는 困境에 빠졌을때 朱子學의 高尚한 理論보다는 마음에 숨어드는 佛敎의 宗敎的 魅力이 더한층 커져서 佛敎는 表面化하게 되었다。

顯宗實錄八年條에 보면 戒習이라는 賊僧이 나타나 領府事 李景奭의 子라 僞稱하고서 愚民을 說誘하여 吾能圖免 汝等之身이라 하며 役人들은 크게 믿었으나 不軌의 일을 圖謀한바 있어 드디어 戒習은 그罪에 伏주하였다는 記錄이 보이거니와, 이 顯宗朝에는 數次에 걸쳐 飢饉이 甚하였고, 거기애다가 兩班의 使役에 허덕이는 一般平民들은 조금이라도 마음에 慰安을 주는 佛敎에 自然 귀를 기울리게 되었다。

또 肅宗實錄二年條에 보면 일僧 處實이 伏주하였다는 記錄이 보인다. 處實은 自稱 神僧이라 일겼고, 또한 小王佛를 가지고서 무릇 빌어 求하면 열지 못하고 일우지 못함이 없다고 하며 愚民들은 물결 같이 모여들어 生佛이라 하였고, 諸宮內人들 까지모 供佛함이 많어 尊信지 않음이 없었다고 한다. 이와같이 佛敎가 一般平民들에게 尊信받았다는 것은 事實일 것이다。

佛敎에 對한 關心乃至 信仰은 愚民이나 婦女들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當時 學者들은 自己의 學理上 到底히 容納하지는 못하였으나 人間이 人間의 虛無함을 깨달았때 어쩔수 없이 하나의 宗敎로써 佛敎를 信奉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와같이 佛敎는 李朝社會를 一括하여 表面上으로는 排斥받았으나 그 內面으로는 封建社會에 對한 反抗과 朱子學의 人間問題의 未解決에 對하여 宗敎로서의 佛敎를 信奉함으로써 慰安을 받자고 하였

던 것이다.

ㄷ, 文學的 事象

① 詩歌文學

純粹한 우리 國文學은 新羅의 鄉歌, 高麗의 俗歌 등이 있지만, 李朝建國以後, 訓民正音이 創製되어서 우리말로 쓰여진 作品을 일 것이다.

歌辭文學은 麗代 景幾體歌의 영향을 받아 李朝建國以後 더욱 發展하여 成宗朝 丁克仁의 賞春曲에서 그 定形을 보였으며 이어서 宣祖朝의 松江鄭徹에 이르러 大成을 보였고, 仁祖朝의 朴仁老에 이르러 쇠퇴一路를 보였다.

또 麗末 儒臣들에서 쓰기 始作한 時調는 李朝에 들어와 더욱 隆盛하여 우리 國文學의 主流를 이루었다. 時調는 特히 漢學者들이 余技로써 創作하여 오던 것이 壬•丙兩亂을 치므로 난 仁顯朝에 이르러서는 時調文學이 發揮時代를 이루었다. 卽 時調의 '大家 孤山 尹善道를 비롯해서 象村 申晷, 蘆溪 朴仁老, 白沙 李匡福, 仙源 金尙容 등이 輩出하여 前時代의 그와같이 發揮되었던 歌辭文學에 代身해서 隆盛함을 보였다. 또 이어 肅宗朝에는 前時代에 그와같이 華麗한 時調文學이 이時代에 이르러서는 쇠퇴一路를 걸어갔던 것이다. 그 作家들을 보면 宋時烈, 南九萬, 李澤 등이 나와 前時代의 時調文學을 이어 받기는 하였으나 쓸쓸한 가을달을 對한것 같은 느낌을 주는 隱遁的 作品을 남겼으니 當時 貴族文學의 中心이던 時調文學이 衰退하여 갔다.

이와같은 肅宗時代의 時調文學의 衰退는 다음 世代에 올 文學을 豫期할수 있게한다.

② 小說文學

李朝時代에 들어와 漢學者들은 文學을 한계의 余技로 보았고 더군다나 小說은 무력대고 排斥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小說다운 小說이 創作되어 나올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것이 世祖朝에 이르러 金時習의 『金史新話』가 우리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小說形式을 갖추어 나왔고 그后 宣祖 光海朝에 이르러 許筠의 『洪吉童傳』을 비롯해서 많은 軍談小說이 나왔다. 이 軍談小說은 中國 羅貫中의 『三國誌演義』를 모방하여 쓰여졌던 것이다.

壬, 丙兩亂을 치르고난 一般庶民은 自我에 눈뜨기 始作하여 新文藝運動이 發興하였으며, 더군다나 中國에서 많은 小說類가 들어와, 여기에 영향을 받아 肅宗朝에 이르러 한글小說이 많이 쓰여졌다. 前時代의 小說類는 대개가 漢字小說이라서 一部知識層에 限했던 것이 이時代에와서 한글小說이 製作됨을 기다려 一般平民文學이 胎頭하기 始作 했다.

西浦의 『九雲夢』과 『謝氏南征記』를 비롯해서 후에 『夢』字小說, 家庭小說이 많이 나와 英, 正祖時代에 平民文學 發興時代를 이루었다.

2. 家庭環境과 成長

西浦는 仁祖十五年丁丑(1637)에 光山金氏의 巨族의 家門에 태어나 肅宗十八年壬申(1693)에 享年五十六으로 歿하였다. 그의 號는 西浦, 字는 重叔, 名은 萬重이다.

그의 증祖父는 李栗谷의 高弟인 禮學의 大家 沙溪 金長生이고, 從祖父는 慎獨齋 金集이다. 忠烈公 金益경은 그의 父親이며, 그의 兄은 瑞石 金萬基였다. 이와같이 그의 家庭은 當時 名望있는 禮學의 大家였다. 여기에 對해서는 『尹氏行狀』(西浦作 그의 母親尹氏

의 行狀)에서 尹氏가 金氏의 家門으로 出嫁할때 尹氏의 祖母 卽 貞惠翁主(宣祖의女)가 尹氏에게 가르친말

「너의 失家는 禮法하는 집이라 或 婦道를 억이워 세 날을 부끄럽게말라!

라 記錄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可히 짐작될것이다.

그의 父親 忠烈公은 仁祖丙子胡亂 當時 卽 西浦가 난 丁丑年에 江都에서 金尙容을 따라 殉節하였으니 그는 아직 胎中에 있었고 兄 珮石은 겨우 다섯 살이었다.

이리하여 遺腹子로 태어난 西浦는 그의 母親 尹氏의 힘 입은바 많은데 이에對하여서는 尹氏行狀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尹氏의 본은 善山海平이며 高祖父는 領議政海平府君 斗壽이고 祖父 海嵩尉 新之며 祖母는 宣祖의 女 貞惠翁主이고 父가 吏參判을 지낸 지, 母가 京畿監司 命元의 女인 洪氏였다. 元來 尹氏가 無男 獨女로 태어났든 만큼 어린때의 敎育은 翁主가 親히 擔當하여 小學을 비롯해서 婦道 其他에 이르기 까지를 指導하였다한다.

西浦의 父親이 江都에서 殉節한后, 親家에 돌아온 尹氏는 밖으로 參判公을 섬기고 안으로 母夫人 洪氏를 도와 家事를 보살피게 되었는데 그 困難한 生計中에 있어서도 두 아들에 對한 敎育은 極히 嚴格한 것같다. 그리하여 小學, 史略 唐詩等은 尹氏가 直接 가르쳤다고하며, 尹氏가 恒常 두 아들에게 訓戒한말로

「너희 무리 다른 사람에 비길배 아니라, 만다시 才調! 남에서 한 層이 지나야, 겨우 남에게 參與하니, 사람이 行實없는 者를 꾸짖자에 반듯이 잘오되 寡婦의 子息이로다 하는 지라, 이말을 마땅히 必에 사기라」 (尹氏行狀)

한 것을보면 尹氏가 子弟 敎育함에 있어 悲壯한 決意를 하고 있

음이 보인다。當時가 亂世인 만큼 書籍이 얻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尹氏는 困難한 生活에서도 穀食을 주어 먹라고 사주었다고 하며, 더욱이 『左氏傳』이 一秋에 있으되 그값이 너무많어 아들이 말 못함을 보고 尹氏는 卽座에서 배를가운뎃 명주를 끊어 그값을 주었다고 한다。 또 西浦가 肅宗十三年丁亥에 嶺海로 귀양갈때에 尹氏의 말은 참으로 悲壯하바 있다。

「嶺海의 行함은 옛 착한 사람들도 오히려 면지못하니 行하야 음을 스스로 사랑하고 날을 생각하지말라」 (尹氏行狀)

라 하였다。 여기서 尹氏가 그와같이 사랑하던 아들이 귀양갈때 이러한 말을 하였다는 것은 그의 決意가 어떠한지 알수있다。 그 이듬해 西浦는 遊還되었다가, 다시 己巳年(肅宗十五年)에 南海로 移配되고 또 孫男三人도 絶島에 安置됨에 尹氏는 憂愁끝에 그의 宿患이 惡化하여 드디어 그해 겨울, 卽 十二月二十二日에 世上을 떠나고야 말았다。

西浦는 遺腹子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못함을 平生의 恨으로 삼고 있었던 만큼 어머니에 對해서는 그 孝誠과 思慕가 極盡하였던 것 같다。 卽 西浦集에 보면

「每歲慈親初渡日 弟兄相對舞衣班
弟今奉使違親膝 多恐親心朱盡歡」

이詩는 西浦가 嶺南으로 奉使갈때 부른 詩인데 이와같은 思親의 뜻의詩는 그의 文集속에 많이 보인다。

이 와같이 母親에 對한 孝誠이 至極한 그가 늙은 母親을 두노 귀양갈때의 그의 마음이야 오죽이나 쓰라렸을까? 도라갔다는 消息을 듣고, 또 葬禮에도 參加지못하여 思慕의 懇切함이 病으로 化하여 肅宗十八年 五十六才를 一期로 配所에서 世上을 떠났다。 正宗朝에 이

모리 그에게 文孝라는 諡號를 내리었다 한다. 卽 그는 禮에 嚴한 家庭에서 태어나 母親에게 敎育을 받았고 또한 母親에 對한 孝誠이 至極하였던 것을 알수있다.

3. 政治生活

西浦는 顯宗元年二十三才에 처음으로 登科하여 大提學에 이르기까지 波瀾 많은 官路生活을 하였다. 卽 그의 政治生活의 李朝實錄에 나타난 것을보면

「顯宗元年(二十三才) 登科

- 七年(三十才) 正言
- 九年(三十一才) 副修撰
- 九年(三十二才) 經書校正廳校正官
- 十年(三十三才) 獻納
- 十年(三十三才) 司書
- 十四年(三十七才) 副修撰

肅宗元年(三十八才) 削奪官爵

- 五年(四十三才) 禮書參識
- 七年(四十五才) 藝文提學
- 九年(四十七才) 大提學
- 九年(四十七才) 大司憲
- 十二年(五十才) 大提學
- 十三年(五十一才) 知經筵, 宣川窠配
- 十四年(五十二才) 放還
- 十五年(五十三才) 絶島完置
- 十八年(五十六才) 卒」

이와같이 그는 大提學 大司憲 이라는 要職에 있기는 하였으나 그만큼 受難의 時期도 많았었다. 卽 肅宗十三年에 宣川으로 귀양가서 갓인고초를 받다가 이듬해 十一月에 도라오게 되었는데, 이것은 放還에 앞선 十月二十七日에 張昭儀에게 王子가 誕生한 慶事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十五年에 이르러 王子 名號冊定에서 인은바 己巳換局이 일어나 前述한바와 같이 西人이 沒落되어 西浦는 絶島로 安置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己巳年에 귀양간 西浦는 中宮(민妃)의 復位와 西人의 再起를 보지못한채 드디어 肅宗十八年에 講所에서 世上을 떠나고 말았다.

以上과 같이 西浦의 政治的 生涯는 不安한 生活이었으며 또한 結局에 가서는 대단히 不幸하였다. 이러한 結末에서 그는 남달은 人生觀을 가졌으니 그것은 現實的 合理主義인 儒敎의 敎育을 받고 立身揚名은 하였으나 다른 한편 現實 否定的 來世主義의 佛敎에도 깊은 造예를 가졌던 것이니, 그는 이러한 人生觀을 그의 作品에서 잘 들려냈다.

4. 內面生活 (佛敎의 生活)

前述한 바와같이 李朝時代의 佛敎는 上層社會에서 排斥을 받았으나, 그래도 社會各部分에 숨어 있었다. 그럴 當時 學者들은 거의 全部가 排斥하여 왔는데 西浦는 佛敎에 對한 어떠한 態度를 가졌을까? 여기에 對하여 그의 西浦漫筆에 두렸기, 나타나고 있으니, 西浦漫筆의 內容은 半以上이나 佛敎에 對하여 言及한 것이라 하여 當時에 있어서는 異端的인 冊이라고 儒林들의 非難을 받았다 한다.

여기에 대하여 北軒의 西浦漫筆序文에서

「或者難小子曰 漫筆誠高矣 但有可疑者 其講論之說
時與先儒者異同 又似汎濫釋氏何也」

와같이 西浦漫筆에 佛敎的인 敘述이 많다는에 對하여 言及한곳이
있거니와 直接 〃西浦漫筆〃에서 佛敎에 對한 敘述을 二三採錄해 보면

「佛者雖繁 其要不出於眞空妙有四字 圭峰宗密謂

眞空者 不遠有之空也 妙有者 不違空之有也

此語頗與謙溪 周子無極而太極似」

라하여 佛敎의 敎理를 儒敎와 比較하였고, 또

「聖賢立敎 隨時不同……釋迦也說法 四十余年

惟諄諄於戒律 最后始說一乘之法而脫滅 遺敎又復說誠
其不踐如此」

라 釋迦의 說法態度를 聖賢의 立敎에 比較하였음을 볼때 西浦는
佛敎에 對한 造이 있었을뿐만 아니라 佛敎에 對하여 好感을 가
지고 意識的으로 佛敎의 敎理를 研究하였음을 알수있다.

이와같이 西浦가 佛敎에 對하여 關心을 가지게 된原因으로서는 그
의 博學에도 있지만 그가 遺腹子로 태어나서 父親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음을 一生의 恨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一種의 無常을 느
꼈을지도 도드라져 激化되어 가는 黨爭속에서 不安한 政治生活를 繼
續하여 가며 政治의 腐敗와 百姓들의 悲慘한 生活 狀態를 보라볼
때 多情多感한 西浦는 隱然中 人生에 對한 悲哀와 無常을 느꼈을
것이니, 이러한 現實的 生活에서 幸福을 찾아보지 못한 그에게는 自
然 佛敎的인 來世에 對한 憧憬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며 佛敎的인
人生觀으로 기우머지게 되었을 것이다.

5. 爲 人

前述한 바와 같이 西浦는 當時 禮學으로서 훌륭한 집에서 遺孺子로 태어나 어머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또한 嚴格한 教育을 받으면서 자라난 關係로 自然 母親에 對한 孝誠은 至極하여 封建 社會의 典形을 이루었다.

即 그의 孝誠에 對해서는 前述한 바도 있지만은 그의 從孫인 金春澤의 『北軒集』에서도 論하였고, 또 李재의 『三官記』에

「西浦金公性至孝 自以孺子生不識父面 竟終身痛事 母夫人有甚愛
其所以娛悅親意者 殆類古之弄璋兒啼 以夫人好書 誦古史異書
以至比官雜記 日夜流左右 以資一笑 自少至老 非有公故
未嘗去其側 異官之后 每日早朝往省 人定時方遣 隣人窺識之
一不蹉跌 公之孝誠如何」

라 하였으니 그의 孝誠이 어떠한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의 性格에 對해서는 政治生活에서 如實히 나타나고 있으며, 即 二宋과 같은 西人의 猛將은 아닐지 모르나, 그러나 極히 剛直한 人物이라는 印象을 주고 있었든듯하다. 肅宗元年 削奪官爵 時에만 하여도 肅宗은

「金萬重以好巧不正之輩 曾在先朝 構陷領相 得免刑推 只爲定配
於거幸矣 偶然落默 揚々入前 不思悔改 無所顧忌 以微細之事
張皇飾辭 執提兩賢 不遺餘力 宋昌……金萬重削奪官爵 宋昌
尤重나問處之 又命抹去金宋二字 只書其名 (肅宋實錄)」

라하여 削奪官爵에 姓字까지 抹去하였다 하니 그가 肅宗에게 까지 極히 剛直한 人物이라는 印象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그

는 政治生活를 통하여 볼때 剛直, 清廉, 潔白하였다는 事實을 우리는 볼수가 있다.

結局 政治生活의 不利 卽 自黨의 失敗에 따른 政治的 不利로 말미암아 現實에 있어서는 幸福을 찾아보지 못하여 그는 自然 佛敎的인 人生觀으로 호모게 되었다.

三. 國文學觀

西浦는 上述한 바와 같이 當時 훌륭한 禮家의 집에서 태어나 家內의 嚴訓 밑에 자라났으나, 대답하게도 漢學에 눈이 어두운 儒生들에게 큰소리로 絶叫하였으며 獨特한 文學觀을 가졌으니 그의 『西浦漫筆』에서 詩에 對한 見解를 보면

「自沙李公之竄北青 行過鐵嶺宿雲 詞有帶得孤臣憲淚 作行雨 往灑九重宮闕之語 一日光海主遊宴后庭 宮娥有唱是詞者 主曰 大是新聲何處得來 對曰 都下傳唱 云是李某所作 主使之復歌 捷然泣下 詩之感人如此 然若光海者 亦豈不可順爲善哉」

라하여 詩가 사람의 마음을 感動시킴이 이와같으니 光海君 또한 善이라 할것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이것은 바로 詩가 가지고 있는 바, 人間生活에 있어서의 美를 正確히 把握하고 있는말이라 하겠거니와, 한편 小說에 對한 그 見解를 들어보면

「東坡志林曰 塗巷中 小兒薄劣 其家所壓苦 輒與錢令聚坐聽說古話 至說三國事 聞劉玄德敗 頓蹙有出涕者 聞曹孟德敗 即喜唱決 此其羅氏演義之披與手 今以陳壽 史傳溫公通鑑 衆聚請說 人未必有出涕者 此通俗小說之作也」

라한것을 보면 史傳이나 通鑑같은 책은 聽者의 눈물을 흘리게 하

지 못하나 三國誌 演義같은 通俗小説은 聽者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通俗小説을 쓰게되는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곧 小説文學의 大衆的 効力を 說破한 名言이니 從來 漢學者들이 無條件 小説을 排斥한에 比하면 越等한 差가 있다고 이니할수 없으며 여기에 西浦는 小説家로서의 卓越한 識見을 엿볼수있다.

한결을 더 나아가 文藝作品的 基盤이 되는 言語에 對하여 普及하였으니, 即 "西浦年筆"에 보면 松江가辭를 評하는에있어,

「松江 關東別曲 前後思美人歌 乃我東之離騷而 惜其不可以文字寫之 惟樂人輩 口相授 或 傳以國書而已 人有以七言詩翻關東曲而不能佳 或謂澤堂少時作非也 鳩呖羅什 有言曰 天竺俗最尚文其讚佛之詞 極其華美 今譯以奏言只得其意 不得其辭 理固然矣 人心之發於口者爲言 言之節奏者 爲歌詩文賦 四方之言 雖不同 苟有能言者 各因其言而節奏 則皆足以動天地 通鬼神 不獨中華也 今我國詩文 捨其言而學他國之言 假令十分相似 只是 鸚鵡之人言 而여巷間推董波婦이 啞相和者 雖曰鄙리 若論眞膺則尙不可與學士大夫所謂詩賦者 同日而論 況次三別曲者 有天機之自然 而無夷俗之鄙리 自古左海眞文章 只此三篇 然又就三篇而論之 則后美人尤高 關東前美人 猶借文字語 以飾其耳」

이라하여, 번역의 無力과 同時에 言語의 獨自의 價値를 認定하고, 學人들이 所謂 詩賦를 봉무之人言이라 하여 猛烈히 攻擊하고 있다. 西浦는 참다운 文學作品은 自國語로만 써야한다는 가장 自覺한 國語尊重論을 말하였으며, 그가 松江의 作品을 天機의 自然함이 있고 夷俗의 비리함이 없어 左海眞文章은 오직 이三篇이라고 極讚하여 이것을 我東之離소라 불렀다.

이와같이 西浦는 文藝作品的 基盤이 되는 言語에 對하여 國語尊

理論을 내세웠으며, 그는 이것을 그의文學作品中에서 實現하였으니, 이것은 平民文學에의 卓越한 見解를 所有하였음을 알 수 있을 듯 하다.

四. 그의 作品

1. 九 雲 夢

1. 梗 概

衡山에 衛夫人이 仙童 玉女를 베리고 鎮山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六觀大師가 西域으로 부터 와서 草庵을 지어놓고 說法을 하니 洞庭龍王조차 法席에 來參하였다. 하루는 大師가 龍王에 回謝次로 그 弟子 性眞을 洞庭水府에 보냈더니, 때마침 衛夫人은 또 八仙女를 大師에게 보내어 花果를 敬進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使者가 각기 그 職責을 다하고 돌아가는 便인에 偶然히도 途中 石橋上에서 서로 만나게 되어 柔軟한 情으로 한번 戲弄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罪가되어 그들은 드디어 瑤王에게 押送되어 그들은 各々 人間에 내친바가 되고말았다. 여기에 性眞은 楊少유로, 八仙女는 各々 華州 秦彩鳳, 洛陽名妓 桂綈月, 江北名妓 적鷺鴻, 京師 鄭小姐와 그의 侍婢 春雲, 皇妹 蘭陽公主, 吐蕃刺客 沈且煙, 龍女 百陵波等 人間으로 還生하였다. 楊少유는 少年 登科하며 皇京으로 向하여 가는 도中 華隴縣에 이르러 秦御使의 딸이 되어 있는 秦彩鳳과 만나 百年住約을 맺으려다 不意의 兵亂을 만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헤어지고, 科擧日이 延期되어 집에 돌아와 있다가 翌春에 科擧 보러 洛陽에 이르러서 宴中에서 洛陽名妓 桂綈月을 만나 百年住約을 맺고는 헤어지면서 後日을 期約하였다. 長安에 到着한 楊少유는 집을 며날

때 老母가 찾아가라고 하는 杜鍊師의 周施으로 鄭使道宅에 가서 그의 딸 鄭小姐를 만나본後 그는 壯元 及弟하고 나서는 鄭使道를 찾아와서 鄭小姐와 約婚을 하고는 翰林이 되어 仕朝하게 되자 鄭使道の 집에 살면서 鄭小姐의 侍婢 春雲과 또한 交情하였다. 이때 河北 三鎮이 起兵 侵入할새 揚翰林으로 하여금 侍節往유하게 되자 揚小유는 受命하고 出征할새 燕國에 드러가 燕王을 順從케 하여 衣服을 받고 돌아 오다가 洛陽에 이르러 桂섬月인줄 알고 반가히 만나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는 비로소 桂섬月이 아닌줄을 알고 무르니 河北 名妓 저鷺鳴이라 함에 또 그와 佳緣을 맺고 나니 桂섬月이 나와서 事由를 밝히게 되자 그는 비로소 納得하고 後日을 期約하고 皇京으로 도라와서 天子의 嘉賞을 받고 天子의 周施으로 皇妹가 되어 있는 蘭陽公主와 또한 佳緣을 맺었다. 또 揚小유는 吐蕃을 征伐할때 吐蕃의 왕이 보낸 刺客 沈노煙을 만나 佳緣을 맺고는 吐蕃으로 돌터 보내어 吐蕃王을 죽이게 하고는 또 發行할새 龍王의 招待를 받아 龍宮에 가서 陰兵을 破해주고는 龍女가 되어 있는 白陵波를 만나 또한 百年 佳約을 맺었다. 이와같이 揚小유는 八仙女를 차례로 만나 三妻五첩을 삼고 一家和樂한 가운데 富貴功名이 一世에 進動하였으며 人間享樂을 마음껏 누리었다. 그러다가 하루는 九人이 한자리에 모여 人生의 虛無함을 論하고 장차 佛道로써 永生을 求하려 하였으니 때마침 胡僧이 來訪하여 있어 서로 주고받는 말 가운데 揚小유 大오하여 이 人間輪迴의 꿈을 깨고 지금 大師의 앞에 섰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前罪를 謝하고 오覺을 빌었더니 그때 八仙女가 다 같이 와서 大師께 明教를 特坐하기를 빌었다. 여기에 大師가 그들을 爲하여 講說 經文을 하니 性眞과 八仙女가 모두 本姓으로 頓오하여 寂滅의 道를 大得하고 後

에 極樂世界에 도라갔다 한다.

ㄴ, 著作 에 關한 事 定 實

九雲夢의 著作事實에 關하여서는 陶菴 李濟(-六八〇--七四四)의 三官記에

「裨說有九雲夢者 卽西浦所作 大旨以功名富貴 歸之於一場春夢 要以 慰釋大夫人憂思 其書盛行閩湖間 餘兒時慣聞其說 蓋以釋伽寓言而中多 楚 騷遺意云」

라 하였으며 沈략의 『松泉筆潭』에도 이와 꼭 같은 記錄이 보인다. 또 李圭景의 『五州衍文長箋散稿』에도

「閩巷間流行者 只有九雲夢 西浦金萬重所撰 亦有意義 世傳西浦闢 荒時 爲大夫人破閑 一夜製云云」

라 하였다. 以上の 諸說을 綜合하여 보면 九雲夢은 西浦의 作이 라는 것과 그가 配所에서 지었다는 것과 또한 母大夫人의 憂思를 慰勞하기 爲하여 著作했다는 것을 말했으며 前述한 바와 같이 그는 恒常 母親을 爲하여 古史, 異書 및 雜記等의 談說하였다는 事實과 西浦自身 小說에 對하여 뛰어난 見解를 가졌다는 것, 또한 母親에 對하여 孝誠이 至極하였다는 것 등을 비추어 볼 때, 母親을 爲하여 九雲夢을 지었다는 것은 疑心할 바 없다.

現行 九雲夢에는 한글本과 漢文本이 있는데 이것에 對하여 서는 『北軒集』에 「西浦頗多以俗諺爲小說 其中所謂南征記者 有非等聞之此 余故翻以文字云云」

라 하여 西浦는 많은 한글小說을 썼는데 그중에서 南征記를 漢文으로 翻譯 하였다는 事實도 볼 때 西浦가 한글로 九雲夢을 지었을 것이고 이것을 北軒이 漢文으로 번역하였을 것이다.

ㄷ, 著作年代

九雲夢의 著作年代에 關하여서는 確實한 根據가 나타나지 않아 잘 알수는 없으나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散稿」에

「世傳 西浦在荒時 爲大夫人稍愁 一夜製之云云」

라하여 있으나 一夜製之云云을 勿論 後人の 과張일 것이다. 西浦가 귀양갔을때 어머니의 근심을 풀리기 爲하여 지었다는것과, 그 內容의 富貴功名이 一場春夢에 歸一시킨 것 등을 미루어 볼때 그가 配所에서 지었다는 것은 事實인 것이다.

그러면 그의 謫配生活은 肅宗十三年과 十五年 二次에 걸렸는데 과연 어느때 著作하였을까 여기에 對하여 여러學者들이 論하여온바 있다. 卽 趙潤濟博士는 朝鮮小說史概要(文章二卷七號)에서

(九雲夢은 傳해오는 말에 依하면 全히 그가 肅宗十五年에 嶺海로 竄謫하였을 때에 그 母夫人을 慰勞하기 爲하여 지은 것이라 한다)

라 하여 肅宗十五年이라 했고, 또 金台俊氏는 그의 「朝鮮小說史」에서

「肅宗十五年 西浦被配直后에 그 어머니 尹夫人이 歿하였으니 九雲夢의 한글本(正音本)은 肅宗十五年에 著作된 것이다」

라 하여 肅宗十五年이라 斷定하고 있다. 또 李九明氏는 여기 十五年이라 斷定 지우는데 不滿을 품고 그의 「九雲夢考」(成均學報二輯)에서

「十五年이라 斷定지우는 것 보다는 모리어 十三年으로 부터 十五年사이라고 하여두는 것이, 어느듯 多少 漠然한 일일지 모르나, 모리어 無難한 態度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이다」

라 하였다.

이와 같이 確實한 根據가 없음으로 이렇다고 斷定지울수는 없으며, 그렇다고 十三年으로 부터 十五年사이라고 함은 너무나 애매한바

있다. 그러나 確實한 根據가 들어 날때까지는 어떻다고 斷定할 수는 없으며 다 推定에 不過한 것이다.

ㄹ, 藍本에 對하여

西浦의 作 九雲夢의 藍本如何에 關하여서는 여러 學者들이 論한 바 있다. 金台俊氏는 그의 『朝鮮小說史』에서 林虎隱傳과 張國鎮傳의 影響은 받아 쓰여지지 않았을가, 하였으나, 此作品은 年代가 分明지 않음으로 무어라 더 論할수 없으며, 周王山氏의 『朝鮮古代小說史』에서는 中國의 『紅樓夢』의 影響을 받았다고하나, 이는 紅樓夢의 著作年代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卽 紅樓夢은 九雲夢의 나온 五, 六十年后 清朝初期(一七六五年경) 曹雪근에 依하여 製作되었음으로 이는 잘못된 說이다. 또 이와 꼭 같이 人生富貴功名을 一場春夢으로 歸一시킨 內容의 作品으로는 中國의 『黃梁夢』이라는 傳奇小說이 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는 三國遺史에 보이는 佛敎說話인 調信 이야기 등이 있다.

元來 이 九雲夢은 佛敎的 人生觀으로 綴어진 作品이고, 또 西浦는 前述한 바와 같이 佛敎에 對하여 相當한 敎養과 造예를 갖았으며 또한 그의 才能이 充分히 이만한 作品은 純創作해 였으리라 고 생각되나, 그렇다고 西浦가 이러한 佛敎의 敎養과 作品을 連結 시켰다고는 생각하기 難할듯 하다. 하여간 西浦는 確實히 어느 作品이라고는 指摘할수 없고, 이와 비슷한 內容의 作品에서 힌트를 받아 著作한것만은 事實이라고 생각된다.

ㄹ, 內 容

九雲夢은 우리나라의 古代小說로서 東洋의인 封建思想을 잘 드러 낸 作品이다. J. S. Gale 博士는 九雲夢을 「The cloud dream of the nine」라는 題目으로 英譯하여 구라과에 紹介하였는데 그 序文에서

「讀者는 이 책을 끝까지 재미있게 볼려면 西洋의 道德觀念을 떠나서 읽어야한다」고 하였다. 이것을 보아도 이 作品 全篇을 통하여 東洋的인 封建思想으로 一貫되었음을 알수있다. 卽 東洋의 代表的思想인 儒, 佛, 道敎의 思想을 融合시켜, 儒敎의 忠誠을 내세운 現實主義와, 佛敎의 世속的인 富貴功名을 否定하는 隱遁思想과, 道敎의 享樂主義가 渾然히 一致되어 있으나 果結的으로는 來世的인 佛敎面으로 기울어 지고 있는때, 이것은 곧 人間世界에 있어서 富貴, 功名 榮華가 다 一場春夢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끝에 가서는 永遠한 極樂世界를 追求하였다. 九雲夢은 朝鮮人의 精神生活, 特히 信仰生活를 赤裸裸하게 그려냈고 또 과거의 階級社會의 全面을 잘들려다 볼수 있도록 그려냈고, 과거의 封建主義의 矛盾을 들추어 냈으니, 그를 八仙女의 女權은 余地없이 깃발혀 揚小游 앞에서는 한개의 家畜과 같은 待遇를 받으면서도 도리어 그것을 滿足하게 여겼던 것이다. 또 이 作品에서 過去의 一夫多妻主義의 社會 組織을 如實히 보이고 있으니, 主人公인 才士型의 揚少游는 風流라는 口實 밑에서 放蕩한 生活를 하여, 道學者로 하여금 눈살을 찌프리게 할만한 作品이다. 이렇게 九雲夢은 作者 自身이 道學者 이면서도 一絲不亂한 構成과 簡潔한 文体로 倫理 道德의 嚴格한 拘束에서 벗어나, 人間本來의 慾望——그중에서도 男性이 女性에 對한 慾望을 숨김없이 表現하고있다.

九雲夢은 地上에다가 天上의 仙境을 存在케한 架空的 小說이라기 보다는 人間의 本來의 希望인 來世의 樂園을 現實上에서 그려본 作品이라 할수있으나 佛敎的인 因果應報의 思想으로 얽혀진 作品이다. 卽 主人公 性眞은 仙界의 業行이 因이 되어서 現實의 果도 揚小游가 되어서 還生하게 되었으며, 또한 揚小游는 現實의 善業이 因이 되어서 極樂世界로 도라 갔다는 것이다. 또 眞性과 八仙女

는 前世에서 結緣이 되어 現世에 還生하고 夫婦가 되어 現實世界의 온갖 苦樂을 같이 하다가 다시 來世로 보타가서 옛날의 性眞과 八仙女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人間世界의 享樂은 瞬間的이며 虛無하고 無常한 生活이요 佛教의 極樂世界만이 永生이 不變한 世界라고 東洋의 中世紀의 人生觀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요컨대 九雲몽은 東洋的인 中世紀 生活 樣相을 如實히 表現한 作品이다. 一夫多妻主義의 巧妙한 合理化, 儒, 佛, 道教의 混然한 一致境, 그러나 이것들이 結局에 가서는 佛教의 人生觀에 歸一한 作品이다.

2. 謝氏南征記

1. 梗概

明나라 嘉靖年間(中宗十七-宣祖二十二年)에 金陵 順天府에 劉熙然一位 名相이 있어 벼슬이 禮部尙書에 이르렀다. 그에게는 延壽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어려서 母夫人이 棄世하고 말았다. 延壽가 及長하며 科擧에 應試하여 壯元及第하고 翰林編修를 除授받았으나 上소하여 十年后 盡忠하겠노라 하고 朝廷에서 물러나와 工夫에 全心を 기우리고 있었다. 劉翰林은 淑德과 才學이 兼備한 謝氏를 娶하여 琴瑟의 樂이 至極하였으나, 謝氏는 劉氏家門에 들어온지 九年 되어도 膝下에 子女를 두지 못하여 근심하고 있었는데, 謝氏가 子女낳기를 마땅수 없어 后日祖上의 香花를 받들지 못할가 두려워 하는 나머지 男便 翰林을 勸하여 妾喬氏를 맞아드려 子女를 보게 하였다. 妾氏는 天性이 奸惡하고 嫉妬와 猜忌心이 強하여 門客을 私置하고 凶計를 꾸미어 謝氏를 謀害하려고 여러가지로 男便을 參訴하였다. 純眞한 劉翰林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으나 結局에 가서는 妾氏의 奸計에 넘어가서 謝氏를 逐出시키고 妾氏를 正室으로 삼게되

었다. 쫓겨난 謝氏는 南으로 南으로 定處없는 流浪生活를 繼續하면서 온갖 風波와 苦楚를 겪으면서 때로는 自殺을 企圖하려고도 하였으나 여러번 神靈의 啓示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娥皇女英의 敎示를 받아 靑山의 光明이 오기를 苦待하고 있었다. 正室 謝氏를 쫓차내고 自己가 正室이된 喬氏는 門客 董淸과 奸通하는 나머지 劉翰林마저 謀陷하여 遠謫을 시키는 同時에, 門客은 그 功績으로 地方官이 되어서 赴任할 때 郭氏는 謝氏의 家寶를 모조리 가지고 떠나 가다가 途中에서 도적을 만나 全財를 빼앗기고 窮境에 빠지고 말았다. 이때 朝廷에서 劉翰林의 無罪가 判明되어 召還케 하는 同時에 奸人 董淸을 處罰키로 하였다. 劉翰林은 비로소 郭氏의 奸計에 속은줄 알고 自己의 前罪를 大悟하여 後悔하고 있었는데 朝廷에서 釋放의 命이 오자 大喜하여 謝氏를 찾으며 나섰다. 一方 謝氏 또한 男便이 解免된줄 알고 翰林을 찾아 彷徨하다가 途中에서 邂逅하였다. 劉翰林은 謝氏에 對한 罪를 謝過하고 本家로 도라와서 奸惡한 무리를 全部 處형하고 나서는 謝氏를 다시 正室로 앉히고 一家和樂한 가운데 翰林은 그后 丞相까지 올라 富貴功名을 一世에 누리었다한다.

나, 著作에 關한 事實

謝氏南征記의 作者에 關하여서는 前述한 바와같이 金春澤의 「北軒雜說」에

「西浦頗多以俗諺爲小說 其中所謂南征記者 有非等聞之此 余故翻以文字而之云云」

라 한 것을 보면 謝氏南征記는 西浦가 한글로 지은 것을 그의 從孫인 北軒이 漢文으로 翻譯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著作動機에 關하여서는 李圭景의 「五州衍文長箋散稿」에

「南征記 北軒(이는 잘못이다. 北軒의 漢譯本을 갖고 論하였으

므로 作者에 對한 착오가 생겼다. 實은 西浦) 爲肅宗廟 仁顯王后 獨妃 罪位 愆悟聖心而製者」

라 한것을 보면 肅宗大王이 嬖妃를 廢妃하고 張禧嬪을 왕비로 맞아들인 데 對하여 王의 마음을 悔오시키고져 諷諫하여 지은 作品임을 알수있다.

仁顯王后는 兵조判書 閔維重의 딸임으로 肅宗大王의 仁敬王后 (金萬基의女)가 昇遐하매 그 繼妃로서 冊封되었다. 天性이 聖姿와 聖德으로 더구나 名門 法家에 자라 그 놀라운 凡節은 보는 사람으로하여금 自然 우머머 보게하였다.

그때 肅宗大王의 春秋는 二十一, 后의 春秋는 十五이었다. 坤位의 春秋가 回甲이 아니면 몇해 뒤가 되던것이 普通이었는데, 그렇게 여섯해나 더 젊은 극히 賢美한 后를 맞인 肅宗大王은 仁顯王后에 對한 사랑은 유달히 至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后는 일찍 生産을 못하여 大王을 권하여 淑儀金氏를 뽑아 后궁에 들리기로 하였다. 그런데 궁人 張氏는 侍婢로 后궁에 參與하고 퍼 慧點하여 肅宗의 마음을 잘맞추어서 극히 寵愛를 받으며 그중에서 景宗을 낳았고 이어서 禧嬪이되었다. 그러지 張禧嬪은 景宗을 낳은 것을 威勢로 權勢를 부리고 여러가지로 嬖妃를 謀陷하여 廢位케하고 自己가 王비가 되었다.

嬖妃는 여섯해 동안이나 그 本家인 安國洞에서 외롭고 괴로운 날을 보내다가 肅宗二十年에 復位되었는데 그後 얼마없이 春秋 三十五로 昇遐하였다.

이와같이 邪戀에 눈이 어두운 肅宗大王의 眼光을 다시 빛나게 하려고 西浦는 明나라의 人名과 地名은 밀어써서 肅宗의 마음을 들이키려고 한 것이다

2, 著作年代

謝氏南征記도 九雲몽과 같이 著作年代가 確實히 밝혀 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의 著作動機에 關하여 李圭景의 『五洲衍文』에 『南征記 北軒爲肅宗_조仁顯王后 嬖氏_의 異位 愆悟_의 聖心而製云云』

라 하였고, 西浦가 仁后 廢비 事件에도 極力 反對한 것을 미루어 볼때 그가 聖心을 悔悟키 爲하여 著作한 것은 事實일 것이다. 그런데 廢비 廢비事件은 肅宗十五年이고 그가 이 世上을 떠나기는 肅宗十八年이다. 그리고 嬖妃는 肅宗二十年에 復位되었다.

그럼 西浦가 聖心을 utori키려고 作品을 쓴것은 肅宗十五年으로부터 十八年까지 三年間일 것이다. 그가 肅宗十五年 正月에 귀양왔는데 그해五月에 仁妃가 廢비되었다. 이 消息을 듣고 그는 격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이 謝氏南征記를 著作하므로써 마음에 慰安을 느꼈을것이다. 그리고 이해 十二月에 母大夫人이 돌아가자 母親에 對한 孝誠이 至極한 西浦는 心思가 便치 못하여 그後에는 創作에 손찌지 못하였을 것이다.

2. 內 容

肅宗大王은 어느날 宮人에게 이야기 冊을 읽으라고 하여 끌오리니 宮女는 巧고롭게도 謝氏南征記를 읽어드렸다. 이때 肅宗도 無罪한 本室을 내쫓는 대목에 가서는 劉翰林을 『天下에 고약한 놈이라』고 까지 욕하였다 한다. 그後 肅宗은 이作品에서 刺戟을 받았는지 肅宗二十年에 張氏를 내쫓고 다시 仁비를 復位케 하였다 한다. 이와같이 謝氏南征記는 마침내 肅宗의 마음을 悔悟케 한에서 一種의 目的小說이라고 할수있다.

지금까지의 小說은 中國의 영향을 받아서 軍談이 아니면, 英雄, 名將 들이 忠孝와 戀愛에 成功 하는 功利談인데 反하여 謝氏南征記는 家內의 세악 싸움을 그린 最初의 家庭小說이며, 宮中의 悲劇과 非行을 正面으로 描寫할수 없어 中國의 人名과 地名을 빌

이 側面으로 描寫한 諷刺小說이라고도 할수있다.

結局 이作品은 奸惡한 姜某氏의 무리는 處형 當하고 善良한 謝氏는 다시 劉翰林의 正室이 되어 一家和樂하게 지내게 되었다는 勸善懲惡의 文學이다.

五. 結語—國文學史上의位置—

以上 論述한 바와 같이 西浦는 『九雲夢』과 『謝氏南征記』의 作者임과 同時에 偉大한 文學者요, 國文學의 先驅者요, 開拓者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當時 社會相으로 서는 너무나 엄중한 文學觀을 가졌으며, 또한 가장 自覺한 國語尊重論을 主張하였던 것이다. 그는 禮學者의 一人으로서 母親에 對한 孝誠은 東洋的인 人物으로써 典型的이며, 그의 作 『九雲夢』은 東洋的인 封建思想을 잘 反映시킨 作品임과 同時에 封建社會에 있어서의 男性들의 理想의 文學이라고 할수있으며, 『謝氏南征記』는 宮中の 矛盾된 現實을 異常없이 諷刺한 作品이라 할수있다.

『九雲夢』은 우리나라의 愛情小說의 鼻祖임과 同時에 『몽』字小說이 鼻祖이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에 愛情小說『몽』字小說이 이에 影響을 받아 많이 나왔으며 『謝氏南征記』는 우리나라에서 最初로 쓰여진 家庭小說이다.

우리 國文學을 大別하여 末期 麗末儒臣들로 부터 쓰여지기 始作된 時調文學이 李朝 仁, 顯朝의 孤山 尹善道에 와서 完成되었으며 景幾休歌의 影響을 받아쓰기 始作한 歌辭文學이 宣祖朝 松江 鄭徹에 와서 完成되었다고 하면, 李朝 世祖朝에 金時習의 『金史新話』로부터 始作된 小說文學이 肅宗朝 西浦 金萬重에 이르기 完成되었다고 할 것이다.

(筆者 國文學科二年)